



신지에 불꽃타 시즌 2승 가자

LPGA 웨그먼스 1R 7언더 선두와 1타차 2위

지존 신지에(21·미래에셋)가 팽타를 휘두르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두번째 우승에 시동을 걸었다.

신지에는 26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피츠퍼드의 로커스트힐 골프장(파72·6천365야드)에서 열린 웨그먼스 LPGA 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7개를 쓸어들였다.

7언더와 65타를 적어낸 신지에는 선두 산드라 갈(독일·8언더와 64타)에 1타 뒤진 2위에 올라 지난 3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HS-BC위민스 챔피언스 우승 이후 미국 본토 대회 첫 우승을 노린다.

이날 스코어는 신지에가 2009년 LPGA 투어 정식 멤버가 된 이후 자신의 최저타수다.

올 시즌 11개 대회에 출전했던 신지에는 드라이버 비거리를 제외한 페어웨이와 그린

적중률, 평균 타수, 언더파울 등 대다수 기록 부문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지만 10위 밖으로 밀려난 기록은 평균 퍼트수였다.

평균 퍼트수 33위(29.53개)였던 신지에는 1라운드에서 퍼트수를 25개로 줄였고 티샷과 아이언샷의 정확도도 여전했다.

신지에는 LPGA 투어 공식 인터뷰에서 "몇차례 페어웨이를 놓치기는 했지만 아이언샷이 좋았다. 특히 이번 대회를 앞두고 퍼트 연습을 하루 4-5시간씩 했는데 효과를 봤다"며 "비가 와서 쉬었다가 경기를 재개했는데 바람이 불지 않아 쉽게 플레이했다"고 말했다.

상위권에는 올 시즌 조건부 시드를 받고 출전하고 있는 강혜지(19)도 이름을 올렸다.

2001년 뉴질랜드로 골프유학을 떠난 뒤

호주로 이주했다가 지금은 미국 올랜도에 살고 있는 강혜지는 버디 4개를 골라내 4언더와 68타로 공동 6위에 자리했다.

샷 감각을 되찾아 가고 있는 박세리(32)도 버디 5개에 보기 2개를 묶어 3언더와 69타로 재미교포 위성미(20·나이키골프), 오지영(21), 최나연(22·SK텔레콤) 등과 함께 공동 11위에 올랐다.

작년 대회 우승자 지은희(23·힐라코리아)는 무려 8오버와 80타를 치는 바람에 컷 통과조차 힘들게 됐다.

최근에 드라이버를 바꿨다는 지은희는 티샷을 여섯차례만 페어웨이에 올려 아직 샷 감각을 찾지 못한 듯했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의 조카라는 관심 속에 초청 선수로 출전한 사이언 우즈는 버디는 1개에 그치고 보기 4개를 적어내 3오버와 75타로 하위권에 처했다.

한편 1라운드는 폭풍우가 몰아쳐 차질을 빚다가 일몰로 인해 30여명의 선수가 경기를 끝내지 못했다. /연합뉴스

전남 이천수 사우디 간다

네덜란드 프로축구 페예노르트 소속으로 K-리그 전남 드래곤즈에서 임대 선수로 뛰는 공격수 이천수(28)가 사우디아라비아 무대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 구단은 26일 "이천수가 사우디아라비아 클럽 알 나스르로 이적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선수 자신이 희망하고 있어 안 보내 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천수는 28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포항 스틸러스의 원정 기부터 결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남은 또 "계약 관계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면서 "정확히 언제쯤 이적할 수 있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남은 이천수와 임대 계약을 내년 1월까지 한 만큼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데 따른 위약금 3억5천여만원의 이천수에게 물게 할 방침이다.

이천수의 사우디아라비아행은 원소속구단인 페예노르트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으면서 이달 초부터 이천수 이적료로 재정을 확보하려고 아랍권과 유럽권 리그의 복수 팀과 이적 협상을 벌인 끝에 최근 성사됐다. /연합뉴스



치열한 볼 다툼 26일(한국시간)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엘리스 파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FIFA 컨페더레이션스컵 4강전 브라질 대 남아공의 경기에서 브라질의 펠레(왼쪽)가 테코 모디스와 공을 다투고 있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화촉

▲정국채·박태라씨 사남 천대균 양광 일(대한복싱연맹 부회장)·김순임씨 차녀 금옥양=27일(토) 오후 1시30분 에 별무선웨딩컨벤션 2층(리벤더홀)

▲권준수·오관금씨 장남 원석근 정영두(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총무팀장)·오광숙씨 장녀 소영(광주 문산중 교사) 양=28일(일) 낮 12시 신양파크호텔 1층 웨딩홀(그랜드볼룸)

무음

▲이백순씨 별세 강락원(전 광주은행장)씨 모친상 공인석·김근전(전 명지대교수)씨 빙모상=발인 27일(토)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02-2227-7569.

▲김상채씨 별세 창현·금애·금미씨 부친상=발인 27일(토) 무등장례식장 201호. 515-4488.

▲심상원씨 별세 민선(한하 중공업 대표)·정섭(한하 중공업 상무이사)·점구·순의·순덕·순애씨 부친상=발인 28일(일) 무등장례식장 101호. 515-4488

▲백주순씨 별세 양병석·정환씨 모친상=발인 28일(일) 화동금호장례식장 101호. 062-227-4000.

▲고희씨 별세 조병호·병운·병민·병순씨 모친상=발인 28일(일) 화동금호장례식장 402호. 062-227-4000.

▲박주일씨 별세 창희·정희·수복·희선·화실·두실·현옥씨 부친상=발인 28일(일) 그린장례식장 5분향소. 062-250-4405.

▲안동훈씨 별세 재섭·승섭·경섭·재숙·정숙씨 부친상=발인 28일(일)그린장례식장 9분향소. 062-250-4409.

▲강성진씨 별세 중호·중훈·중현·희숙씨 부친상=발인 29일(월)그린장례식장 12분향소. 062-250-4412.

추신수 또 멀티히트

피츠버그전 2안타

추신수(27·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안타 2개를 때리고 타점까지 올렸지만 팀 패배로 빛이 바랬다.

추신수는 26일(한국시간)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 PNC 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 야구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인디언스 4타수 2안타를 때려 시즌 타율을 0.297(종전 0.293)로 끌어올렸다.

1회초 2사 1루 첫 타석에서 피츠버그 오른손 선발투수 로스 올렌도프에게서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를 때려낸 추신수는 0-0 이던 3회 2사 1루에서 몸쪽 낮은 볼을 퍼올려 우중간을 가르는 2루타로 선제 타점을 올렸다.

18일 밀워키와 경기 이후 6경기 만에 나온 타점으로 시즌 42개째, 안타 2개 이상을 때린 멀티히트 경기도 시즌 23경기로 늘었다.

브라질 2연패냐, 美 처녀 우승이나

컨페드컵 놓고 29일 마지막 격돌

'대회 2연패 달성으로 남미 축구의 자존심을 지키다(브라질), 스페인 격파의 여세를 몰아 대회 첫 우승에 도전한다(미국)' '삼바 군단' 브라질과 북중미 챔피언 미국이 '미리 보는 월드컵'으로 불리는 2009 국제 축구연맹(FIFA) 컨페더레이션스컵(이하 컨페드컵) 우승컵을 다툰다.

브라질과 미국은 오는 29일 오전 3시30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엘리스 파크에서 대망의 결승전을 벌인다.

월드컵 역대 최다인 5차례 우승에 빛나는 브라질은 지난 2005년 독일 대회에 이어 대

회 2연패와 함께 통산 세 번째 컨페드컵 우승을 노린다. 이번 대회 정상에 오르면 두 차례(2001, 2003년) 제패한 프랑스를 제치고 최다 우승국이 된다.

브라질은 이번 대회 예선 B조 두 번째 경기에서 미국을 3-0으로 완파했던 만큼 '아메리카 대륙' 리턴매치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번 대회 3골로 다비드 비아, 페르난도 토레스(이상 스페인)와 함께 득점 부문 공동 1위에 오른 루이스 파비아누와 호비뉴가 등가 감독이 지휘하는 브라질 공격의 쌍두마차다.

또 2골을 사냥한 '하얀 펠레' 카카가 종원을 지휘하고 '거미손' 즐리우 세자르가 지키는 골문도 든든하다.

이에 맞서는 미국은 4강 상대였던 '무적함대' 스페인을 침몰시켰던 상승세가 예상되지 않다. 지난 1992년 대회 3위가 최고 성적 이었던 미국은 FIFA 랭킹 1위이자 지난해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08) 챔피언 스페인을 상대로 조시 알티도르의 선제골과 클린트 덴시의 추가골로 2-0으로 승리하는 이번 대회 최대 이벤트를 연출한 다크호스.

한편 브라질-미국과 결승에 앞서 준결승 패배 쓴맛을 봤던 스페인과 월드컵 개최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은 3-4위전을 벌인다. /연합뉴스

아이엘리시아 성업중!!

가정 모임 및 행사에 딱 맞는 메뉴

특별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급의 메뉴, 건강한 맛, 즐거운 서비스

1인 10,000원 (10명 이상 9,000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1인	10,000									
2인		19,000								
3인			28,000							
4인				37,000						
5인					46,000					
6인						55,000				
7인							64,000			
8인								73,000		
9인									82,000	
10인										91,000

NAVER 예약: 671-1199

주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 55길 10